

# 사람이름이 들어있는 로어성구들의 문화적배경과 번역수법

최영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는 문화의 민족적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으로 됩니다. 민족문화와 민족어는 깊은 련관을 가지고있으며 민족문화의 형식은 민족어에 의해서도 특징지어지게 됩니다.

언어는 문화의 민족적특성을 보존하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351페이지)

오랜 세월 사람들은 자기 민족고유의 문화생활을 진행하여오는 과정에 독특한 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한편 언어는 언제나 민족의 언어인것으로 하여 민족성을 띠고있다. 바로 이러한 문화와 언어는 부단한 발전속에서 밀접한 련관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것을 받아들이며 더욱 풍부화되어간다.

성구나 속담과 같은 어휘적단위들은 해당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배경속에서 창조된것으로 하여 그 형식면에서뿐만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문화적특질을 반영하고있다.

외국어교수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높은 표현적효과를 나타내면서 널리 쓰이고있는 해당 언어의 성구, 속담들을 옹계 리해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문화적배경지식을 충분히 주고 그러한 표현들을 언어정확과 계기에 맞게 능숙히 번역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 글에서는 로어성구들가운데서 사람이름이 들어있는 로어성구들의 문화적배경과 그 번역수법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사람이름이 들어있는 로어성구들에는 우선 고대그리스신화와 관련되어나온 성구들이 있다.

로어성구 《авгиевы конюшни》(아우게아스의 외양간)는 3 000마리의 황소가 항시적으로 매여있었고 30여년동안이나 청소하지 않아 어지럽기 그지없던 엘리스왕국 아우게아스왕의 외양간을 헤라클레스가 강물을 돌려 단 하루동안에 깨끗이 해놓았다는 이야기에 기초한것으로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곳, 란장판》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있다.

로어성구 《ахиллесова пята》(아킬레우스의 발뒤꿈치)는 아킬레우스를 낳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기적을 낳게 하는 스투크스강의 물로 그를 목욕을 시켜 온몸을 그 어떤 무기로도 상처를 입힐수 없는 신체로 만들어놓았지만 아이를 잡고있던 발뒤꿈치만이 약점이였는데 트로야전쟁때 파리스가 바로 거기에 화살을 명중시켜 치명상을 입혔다는 이야기로부터 나온것으로서 《약점, 부족점, 치명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있다.

로어성구 《дамоклов меч》(다모클레스의 장검)는 씨라꾸자왕 디오니시오스(B.C.4세기)가 자기의 왕권을 몹시도 부러워하는 신하 다모클레스를 무거운 장검의 뾰족한 끝이 당장 머리우에 떨어질듯이 말총 한오리에 매달려있는 왕좌에 앉혀놓고 왕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만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자리라고 말해주었다는데로부터 나왔는데 《부단한 위험, 항시적인 위험》이라는 말로 쓰이고있다.

로어성구 《дойти до геркулесовых столпов》(헤르쿨레스의 말뚝들에까지 이르다)는 무적의 영웅 헤르쿨레스가 세계의 끝을 의미하여 지중해의 반대편기슭에 말뚝을 박아놓았는데 그것들을 그의 이름을 따서 헤르쿨레스의 말뚝이라고 불렀다는데로부터 나온것으로서 《극한에 이르다, 한계에 도달하다》라는 뜻으로 특히 과학이나 예술이 도달할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형상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인다.

로어성구 《прокрустово ложе》(프로크루테스의 침대)는 프로크루테스라는 강도가 메가르로 들어가는 길옆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턱대고 잡아서는 자기의 침대에 눕혀보고 사람이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다리를 잘라내고 작으면 잡아늘구어 놓았다는 이야기로부터 나온것으로서 《억지맞춤》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로어성구 《муки Тантала》(탄탈로스의 고통)는 리디아왕국의 대왕 탄탈로스가 신들이 전지전능한가를 보려고 자기의 아들 펠로프스를 죽여 료리를 만들어 그들에게 대접한 것으로 하여 영원한 기아와 갈증의 고통을 당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데로부터 나온것인데 그림의 떡과 같이 뻔히 눈앞에서 보면서도 원하는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있다.

사람이름이 들어있는 로어성구론적단위들에는 또한 문학작품과 관련되어나온 성구들이 있다.

로어성구 《А Васька слушает да ест.》(그런데 와씨까는 들으며 먹기만 한다.)는 닭고기를 몰래 훔쳐먹고있는 와씨까라는 수고양이에게 료리사가 돌아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오래동안 말해주었으나 그놈은 태연히 계속 먹고만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우화 《고양이와 료리사》(이. 아. 크릴로브, 1812년)로부터 나온것으로서 그 어떤 충고나 설복도 귀등으로 흘려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는 말로 쓰이고있다.

로어성구 《бальзаковский возраст》(발자끄식나이)는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작가의 한사람인 오노레 드 발자끄(1799-1850년)가 수십편의 소설을 묶은 총서 《인간희곡》에서 19세기 전반기 프랑스사회는 황금만능에 기초한 부패한 사회라는것을 비판폭로하면서 자기 작품의 녀주인공들을 흔히 30~40대 나이의 녀성들로 정하곤 하였다는데로부터 나온 표현이다.

로어성구 《гомерический хохот》(호메로스의 웃음)는 서사시 《일리아스》에서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산정의 12신들이 때없이 대주연을 열고 거나하게 취하여 올림포스산이 당장 허물어질듯 요란하게 웃는것을 형상한 고대그리스의 전설적시인 호메로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표현인데 호탕하게 웃는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있다.

로어성구 《демянова уха》(제미얀의 생선국)는 주인공 제미얀이 생선국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자기의 이웃 포까를 초청하여 그에게 배가 터질 정도로 생선국 네그릇을 먹이고는 또 먹으라고 권하는 바람에 포가가 더는 못견디여 잘 먹었다는 인사도 못한채 달아나고 말았다는 내용을 담은 우화(이. 아. 크릴로브, 1813년)제목으로부터 나온것으로서 이미 더 먹지 못할 정도로 배부른 상태인데 음식을 계속 더하라고 권고하는 경우나 지나치게 집요하게, 지나치게 많은 량을 권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로 쓰이고있다.

로어성구 《от Ромула до наших дней》(로물루스의 시대로부터 현재까지)는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아. 예쓰. 뽀슈킨, 1831년)의 주인공 오네긴이 이것저것 되는대로

어느 학문이건 걸만 훑는 식으로 배웠기때문에 깊이있게 아는것은 하나도 없으나 전설에서 나오는 로마최초의 왕인 로물루스의 시대에서 오늘에 이르는 지나간 나날의 가지가지 일화들을 자기의 기억속에 담아두고있었다는데로부터 나온것으로서 오래전에 시작되어 현재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두고 이르는 말로 쓰이고있다.

로어성구 《И ты, Брут!》(브루투스, 너까지도!)는 고대로마의 역사적사실을 취급한 비극 《율리우스 케자르》(윌리엄 셰익스피어, 1599년)에서 B.C.44년 3월 15일 고대로마의 왕관을 쓰는 원로원의 행사에 참가했다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신하들의 앞장에 평시에 그토록 아껴주고 믿어주었던 양아들 브루투스가 서있는것을 보고 한 케자르의 말로부터 나온것으로서 자신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던 친구가 천만뜻밖에도 자기를 배반하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다.

사람이름이 들어있는 로어성구론적단위들에는 또한 역사적인물들과 관련하여나온것들이 있다.

로어성구 《аннибалова (аннибаловская) клятва》(한니발의 맹세)는 B.C.240년경 에스빠냐에서 8살난 어린 한니발이 자기에게 로마를 증오하고 기어이 복수해야 한다는 사상을 강하게 심어준 아버지인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아밀카르 바르카스를 따라 신전에 가서 로마를 무자비하게 복수하겠다는것을 신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고 B.C.219년에 카르타고의 군사령관으로서 제2차 포에니전쟁을 일으켜 로마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공포에 떨게 한 역사적사실로부터 나온것으로서 끝까지 싸우려는 굳은 맹세를 이르는 말로 쓰이고있다.

로어성구 《буриданов осёл》(부리당의 하늘소)은 인간생활에서 결단성이 있고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똑같은 량의 한아름되는 두 건초무지한가운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하늘소가 있게 한 다음 제먹고싶은것을 먹으라고 하자 그 하늘소는 어느 무지로 갈가 하고 망설이다가 끝내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굶어죽었다는 실례를 들어 설명한 14세기 프랑스의 스콜라철학자 장느 부리당의 이름으로부터 만들어진 표현으로서 우유부단하고 결단성이 없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로어성구 《Всяк Еремей про себя разумей.》(어느 예레메이나 속으로 알고있으라.)는 예언자 예레메이(B.C.7-B.C.6세기초)를 기념하는 명절이 년중 일곱번 있었는데 이 명절들은 어떤 농사일을 시작할 때와 일치하군 한데로부터 나온 표현이다. 이 날들에는 누구나 제가 할 일을 찾아서 하군 하였다는데로부터 나온 이 성구는 각자가 제할바를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고있다.

로어성구 《Платон мне друг, но истина дороже.》(플라톤은 내 친구이지만 진리는 더 귀중하다.)는 고대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이면서도 막역한 사이였지만 과학적문제에서는 추호의 타협도 있을수 없다면서 한 말로부터 나온것으로서 어떤 문제에서 정실안면관계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때 하는 말로 쓰인다.

로어성구 《платоническая любовь》(플라톤식사랑)는 남성과 녀성이 정신적으로만 가까와지고 친밀해지는것을 남녀간의 참된 사랑이라고 인정하였던 고대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B.C.427-B.C.347년)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표현이다.

로어성구 《потёмкинские деревни》(뽀죤킨마을)는 우크라이나총독이었던 뽀죤킨이

쎄바스또뽵항과 니콜라예브항을 건설하고 흑해함대를 창설하려는 자기의 구상실현에 황제 예카제리나 2세를 적극 인입시키기 위해 자기 관할구역에 대한 황제의 여행을 조직하고는 이 지역 촌락들의 허점을 가리우며 마치도 이곳이 한창 번성하는듯 한 인상을 주려고 황제가 통과할 도로옆에 색칠을 한 농가들이 늘어선 눈가림식농촌마을을 건설하고 옷을 잘 입은 사람들만 지나다니게 한데로부터 나온 표현으로서 《사기, 기만, 속임》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있다.

로어성구 《при царе Горохе》(고로흐왕시기에)는 옛날 통치자였다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만들어진것인데 실지 그러한 사람이 존재한것은 아니며 그저 성구에 가져다 붙인 이름이 굳어진것으로서 《멀고먼 옛날, 옛날옛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와 같은 문화적배경을 가지고있는 로어성구론적단위들을 조선어로 옮기는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우에서 본바와 같이 그속에 일정한 내용뿐아니라 해당 민족의 력사와 문화, 전통, 심리 그리고 문제론적빛깔에 대한 정보도 다같이 들어있기때문이다.

로어성구번역에서 해당 표현의 의미는 물론 거기에 담겨진 보충적인 문화적정보까지도 가능한것 살리자면 일정한 수법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름이 들어있는 로어성구들은 무엇보다먼저 문자그대로 번역 즉 축자역을 할수 있다.

성구론적단위들을 문자그대로 번역하면 해당 원어성구의 의미도, 거기에 담긴 민족문화적인 보충적뜻빛깔도 완전무결하게 나타낼수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화적 및 력사적인물이나 문학예술작품의 작가,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성구들을 이런 수법으로 번역할수 있다. 그런 번역수법은 독자들이 이러저러한 인물들이나 그의 성격의 일정한 측면을 쉽게 파악할수 있게 한다.

례: Мы осознаем, что не можем вести себя как Буриданов осел, который, постоянно отказываясь, в конце концов умер с голоду.(우리는 계속 망설이기만 하다가 결국 굶어죽고만 부리당의 하늘소처럼 처신할수 없다는것을 자각하고있다.)

그렇지만 이 번역수법을 천편일률식으로 적용할수는 없다. 그것은 글을 보는 사람들의 문화의식수준이 서로 각이하기때문이다. 만일 해당 나라 사람들의 력사와 문화, 전통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이 있다면 축자역을 리해하는데서 별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표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축자역표현이 난해한것으로 된다. 때문에 이 번역수법을 적용하는것은 아래의 실례와 같이 성구론적표현의 사회문화적배경에 대한 해설이 주어지는 문장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그렇지 않은 문장들에서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의식수준을 고려하여 적용가능성을 잘 타산해보아야 한다.

례: Осокин сначала шагнул к Мирону, а потом заторопился к шофёру, потом опять к Мирону... — Буриданов осёл... — засмеялся Байкалов.

(오소किन은 처음에는 미론에게로 한발자국 내짚었다가 다음에는 운전사쪽으로 바빠 서둘러가다가 다시 미론에게로 향하기를 거듭했다.… 《결단성이 없는 사람이군…》하고 바이칼로브가 웃기 시작하였다.)

사람이름이 들어있는 로어성구들은 다음으로 조선어에서 류사한 성구적표현을 대응시켜 번역할수 있다.

성구론적단위들은 그자체가 높은 간결성과 명료성, 생동성을 가지고있는것만큼 그 번역표현에서도 그러한 특질이 잘 살아나도록 하여야 한다. 축자역을 할수 없는 표현들은 가능한껏 조선어에서 류사한 성구적표현들을 찾아내어 대응시켜야 원문에서와 류사한 표현적효과를 번역문에서 생동하게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례: Сколько раз ему говорили, что в этой комнате курить нельзя, а Васька слушает да ест. Сегодня утром я пришёл, а там опять накурено! (이 방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몇번이나 그에게 말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지요. 오늘 아침에 내가 와보니 방안에 또 담배연기가 뽕얹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주의할것은 사람이름이 들어있는 로어성구들을 조선어에서 사람이름이 들어있는 류사한 성구들과 대응시키는것이 아주 리상적이기는 하지만 두 민족의 사람들의 이름이 큰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그렇게 되면 해당 언어의 민족적특성이 잘 살아나지 않는다는것이다.

실례로 행동이 아주 빠르고 날래며 민첩한 사람을 두고 쓰이는 표현인 로어성구 《Фигаро здесь, Фигаро там.》(여기에도 휘가로, 저기에도 휘가로)이라는 성구를 그와 류사한 조선어성구 《나는 흥범도에 뛰는 차도선》과 대응시키고 그 성구가 쓰인 로어문장을 조선어성구를 써서 번역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원문을 로씨야사람이 아니라 조선사람이 쓴것이라고 잘못 인식할수 있다. 때문에 류사한 조선어표현이라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원어의 민족문화적빛깔을 최대한 살리고 보장하는 원칙에서 번역대응어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람이름이 들어있는 로어성구들은 다음으로 그 내용을 풀어서 번역할수 있다.

성구론적단위들을 번역할 때 축자역을 하거나 그와 류사한 조선어표현들을 찾아 번역하면 거기에 담겨진 기본뜻뿐만아니라 보충적인 민족문화적뜻빛갈까지도 거의 그대로 번역문에 담을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구론적단위들은 보충적인 민족문화적뜻빛갈이 특수하여 그것을 번역상에서 전달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는 성구적표현의 형상성이 좀 약화되더라도 그 기본뜻이 보다 더 정확히 전달되도록 성구의 내용을 풀어서 번역하여야 한다.

례: Не могу объяснить почему, но полёты над водой были для меня страшнее зенитного огня. У каждого свои слабости, своя ахиллесова пята. (무엇이라고 설명할수는 없으나 물위로 비행한다는것은 나에게 있어서 고사화력보다 더 무서웠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약점, 자기의 치명적결함이 있는것이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로어성구 《ахиллесова пята》(아킬레우스의 발뒤꿈치)를 문장에서 그대로 축자역해서는 독자들이 그 뜻을 리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와 류사한 조선어표현도 찾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로어성구의 기본내용이 가능한껏 전달되도록 풀어서 번역할수 있다. 이때 원어표현의 간결성, 명료성, 생동성 등과 같은 형상성과 함께 글체의 빛갈도 번역문에서는 상실되지 않을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충적인 뜻빛갈들은 부차적이고 미사려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때문에 비록 그것은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표현에 담겨진 기본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번역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번역자는 사람이름이 들어있는 성구론적단위들을 번역하는데서 어떤 수법을 적용하

겠는가 하는것을 해당 성구론적단위의 기본뜻과 거기에 담겨진 민족문화적인 보충적뜻빛갈, 작가의 의도, 본문의 총체적인 색채 그리고 그 번역문을 읽을 독자에 따라 능숙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과학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외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더욱 깊이 진행하며 그 성과들을 교육 사업에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떠메고나갈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로어성구, 문화적배경